

## 젊은 벗들의 ‘날개’ 를 위하여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

젊은 세대가 책을 멀리 한단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해 내내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개탄이 곰비임비 터져 나온다.

그 우려와 개탄에 한숨을 보탤 뜻은 없다. 딱히 책을 꼭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괴테가 말했듯이 ‘젯빛 이론’ 보다 푸른 생명의 세계가 한결 아름다운 까닭이다. 더구나 삶이란 본디 누구에게나 먹먹하기 마련이다. 새통스런 말이지만 삶의 무대에 원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그저 불려왔을 따름이다. 그렇지 않아도 쓸쓸한 인생을 책이라는 젯빛 세계에서 낭비할 여유는 없는지도 모른다. 벗들에게 책읽기를 강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따져볼 일이다. 만일 당신이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어디서 그 슬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거듭 자문해볼 일이다. 만일 당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어갈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했다면, 어디서 그 뜻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서 배움의 의미가 드러난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기실 기쁜 일이다. 젊은 벗들에게 《논어》를 거론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정면으로 제안하고 싶다. 《논어》의 첫 마디는 ‘배우고 익힘’에 있다. 공자孔子는 도전적으로 제기한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學而時習之不亦說乎

《논어》를 주석하며 주희朱熹는 학學을 ‘본받는 것’으로 풀었다. 사람이 깨닫는 데에는 앞뒤가 있기 마련이어서 먼저 깨달은 자를 본받아야 한단다. 습習은 한자 모양이 시사하듯이 ‘새가 자주 나는 것’ 鳥數飛也에서 비롯되었다. 새가 날기 위해 연습을 하는 게 습習이라는 새김이다. 실천이 중요함을 이룬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도대체 ‘먼저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아니 대체 우리 둘레에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도 한가.

적잖은 젊은 벗들이 착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을 독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100년 뒤엔 존재하지 않을 게 틀림없다. 숙명이다. 죽음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영원한 단절을 놓는다. 비단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다. 우리 앞에 살아가던 저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라.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그들의 삶은 고스란히 우리의 운명이다. 진부할 만큼 진부해졌지만 ‘무한한 공간 속의 영원한 침묵’이라는 파스칼의 고백은 늘 신선하다. 현실과 과거, 현

실과 미래 사이에 가로놓인 바닥 모를 심연은 우리를 더더욱 힘들게 한다.

하지만 한 가닥 위안은 있다. 그 심연을 건널 다리가 있는 까닭이다. 무엇일까. 바로 책이다. 돌이켜보라. 수천 년의 세월이 걸쳐 인류는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수많은 현인들을 낳았다. 그 슬기로운 사람들은 현명하게도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해 놓았다. 책이다.

하여 단언한다. 책은 삶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책은 우리에게 치열하게 삶을 탐색한 사람의 내면을 전해준다. 책을 통해 아름다운 삶이 생생하게 부활한다. 단 둘만의 대화, 은밀한 사귀이 열린다.

그래서였을까. 젊은 나날 늘 책에 허기를 느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동가슴이 분홍빛으로 물든 까닭이다. 읽고 싶은 책을 캄냥껏 읽을 수 있다는 기쁨은 축복이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책을 자주 만날수록 그 ‘사랑’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 결국 그 시절 점심을 거르며 책을 샀다. 공부의 쓰라림은 영혼이 교감하는 황홀 속에 해소되었다.

점심값으로 모으기 시작한 장서는 어느새 큰 짐이 되었다. 이사갈 때면 어김없이 가장 큰 짐이다. 더러는 버리라고 하지만 어떤 책도 감히 버릴 수 없다. 책은 기실 저자의 영혼이 담긴 짐이 아니던

가. 삶 그 자체가 아니던가. 신문사 안팎의 일로 자정이 넘어 들어갈 때도 책으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서면 머릿살이 팽팽하게 당겨진다. 벽마다, 책 한 권 한 권마다 ‘대화’에 목마른 유령들의 아우성이 사무치게 들려온다. 그들의 고독,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의무가 아닐까. 책은 내게 영혼의 집이자 대화의 공간이다. 그 책들은 내가 오늘 써가는 신문사설과 소설쓰기의 밑절미다.

그래서다. 젊은 벗들에게 강권은 아니지만 정중하게 책 읽기를 권한다. 아끼는 장서들로 서재를 만들면 어떨까. 비록 구석방이라 하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 전제 위에서 다시 습習을 새긴다. 책읽기는 그저 읽기에 그치는 게 아니다. 배움을 익혀 날아야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흠먼지 뒤집어 쓴 젊은 벗들에게 당부한다. 주저앉지 말고 날기를. 높이 날수록 멀리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젊은 벗들에게 날개, 바로 책이다. **추천**

